

생명을
지키려면

대피는 어떻게 해야 할까?

기록적인 태풍이 접근하고 있을 때

거주지역에 어떤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합시다

폭우·태풍 시에는 어느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되는가, 해일의 영향을 받기 쉬운가, 지진 시에는 쓰나미의 영향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가 등을 해저드맵으로 확인합시다.

기록적인 태풍이 접근하고 있을 때

원칙

생명을 지키기 위한
대피행동

태풍이 접근하여 바람이 강해지기 전, 침수가 시작되기 전에

미리 대피!!

대피 시기를 놓쳤다면...

그때 그 자리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소로

대피장소의
우선순위

1 주택·친척집·지인 집·
직장 등

(시내가 아니라도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곳)

대피장소의
우선순위

2 가장 가까운 대피소

(가장 가까운,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곳)

대피장소의
우선순위

3 ■ 가장 가까운 수해 시(해일) 대피 빌딩
(가장 가까운,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곳)
■ 높은 건물이나 높은 장소
(가장 가까운,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곳)

포인트

상황·정보에 맞게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

침수심이 얇은 경우 등 주택에서 머물 수 있는 분

무리해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

비바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집에 머무르는 편이 안전합니다.
주택의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시다.



침수심이 깊은 경우 등 주택에서 머물 수 없는 분

미리 대피

대피소로 대피한다면
개설 상황을 확인

침수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미리 대피합시다.
시내뿐만이 아니라 친척집, 지인집, 직장 등으로 대피하는 것도
선택지 중 하나입니다.



수해 시(해일) 대피 빌딩에 대하여

오사카시에서는 하천범람이나 쓰나미로부터 임시로, 또는 긴급하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설로서 수해 시(해일) 대피 빌딩의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장 가까운 수해 시(해일) 대피 빌딩을 확인합시다.

